

가정의례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을 토대로 한 가정의례교육 방향*

Educational Directions for Family Rites:
Female Undergraduates' Understanding and Practice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 교수 주영애**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Ju, young-a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data on family rite education, as well a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family rites by surveying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and the practice of family rites among female undergraduates, who will be the future leaders of our society. General proclivity toward, and differences between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family rites, as well as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se differences, were further verified with a one-way ANOVA, a t-test, and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is study had two main findings. First, the gap between understanding and practice in family rites, ordered from largest to smallest by sub-sphere, was found to be: coming-of-age ceremonies, birthday rituals, ancestral rituals, funeral rites, and wedding ceremonies. Second, as f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family rites in female undergraduat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mong a total of 18 variabl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own religion, brother's rank, mother's religion, father's religion, mother's job, place where the individual grew up, having experienced family rites,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주영애 (jyoungae@sungshin.ac.k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and monthly income.

In the face of a changing era and environment, the basic spirit of family rites has not changed. However, a new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times is needed.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uitable form of rites for the present age, while taking on a modern acceptance of the significance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se rites.

Key Words : 가정의례(family rites), 가정의례공감(sympathy of family rites), 가정의례적용(application of family rites)

I. 서론

가정의례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상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빠른 문화변동 시기에는 사람들이 처한 문화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해 주므로(박혜인, 2001)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우리는 '가정의례'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례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에 걸로서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사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절까지 포함한다. 오늘날 상용되고 있는 가정의례라는 용어는 1969년 정부 주도로 '가정의례준칙(Family Rite Rules)'을 제정할 때 처음으로 쓰였으며, 이전에는 이를 가례(家禮)라 하였다. 이러한 가정의례는 가족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이에 따르는 의례행동에는 사회적 관계와 상징적 요소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가정의례는 가정적으로는 개별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고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과거로부터 의식이나 의복 및 음식 등이 가문에 따라 규범화되어 이어져왔던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서구문화의 유입과 도시화, 산업화의 확대에 따라 소멸되거나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가정의 본질과 의례의 기본적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있으므로, 현대 사회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 실천적인 가정의례를 지향하는 것은 가정의례의 본질과 의미를 찾고 생활문화를 이어가는 뜻 깊은 일이라 사료된다.

가정의례 연구는 세부내용별로 혼례 관례 상제례 등으로 각각의 주제로 연구된 바와 연구대상별로 가정의례의 전반적인 의식을 연구한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정의례 세부내용별로 연구된 것은 생일의례(이은표, 1998; 안혜숙·김인옥·주영애, 2006; 장상옥, 2004)연구와 성년례(오환일·김정신·이행숙·조희진, 2002; 조희선·이혜자·이윤정, 2002; 이동필, 2004; 주영애b, 2010)연구, 혼례(이지영, 1998; 주영애a, 2010)연구, 상제례(홍현주, 1986; 송유미, 1990; 김인옥, 2003; 구숙희·최배영, 2011)연구 등이 있다. 연구대상별로 볼 때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홍현주, 1986; 송유미, 1995; 이정우, 김명나, 1990, 1993; 구숙희·최배영, 2011)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은선, 2005; 주영애a,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례 상례 제례와 같은 일부 가정의례의식에 관한 연구(이지영, 1998; 장상옥, 2004; 김인옥·안혜숙, 2003), 초중고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종필, 2007; 이승연, 2008; 이동필, 2004)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가족의례의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옥선화·진미정, 2011)가 있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정의례의 주관자가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가정의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례의 주관자는 가족 결속의 강화와 보다 바람직한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가정의례는 예로부터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보고 배워왔던 바가 이를 공감하고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끼쳐 왔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많은 교육이 사회화되어 가정의례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면서 평생동안 거쳐 가는 의례는 변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례과정에서 전수되는 생활문화와 전통성은 민족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에 우리의 생활문화와 가정의례의 전수를 위한 주관자가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를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가정의례 교육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의례의 의미

가정의례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인 출산, 생일(백일·돌·생일·수연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을 총칭한다. 개인은 출생 후 성년례를 거쳐 혼례를 치

르고 매년 생일 의례를 행하며 언젠가는 상례의 죽음을 맞이한 후 사후에는 자손들로부터 제례의 행례로서 기억되게 된다(이길표, 2000). 우리의 가정의례는 주자(朱子) 『가례(家禮)』의 영향을 받은 조선조 사회의 의례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의례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개인의 삶은 가정을 포함한 사회 집단의 일부로 인식되므로 구성원들은 사회가 정해 놓은 일정한 규범과 의례를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가게 되며(박명옥·최배영, 2004) 특히 가정의례를 통하여 개인은 가정과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권리와 의미를 부여받게 되므로 사회질서 및 공동체의식을 유지 강화하고, 개인의 성장 발달, 가족관계의 강화, 세대 간의 연계를 돕는 교육적인 의의도 담고 있다.

2. 가정의례의 내용

1) 생일의례

생일의례는 평생동안 거치게 되는 과정인 백일잔치, 돌잔치, 수연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백일은 아기가 태어난 후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됨을 잔치를 벌여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고, 나아가 아기가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됨을 확인하는 우리 고유의 의례이다(윤서식, 1998).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일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우리 고유의 풍습으로 삼칠일이 산모 중심의 행사였다면 백일은 온전히 아기 중심의 경축이었다(이길표, 2000).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생일인 돌은 아기가 1년이라는 계절적 변화를 모두 극복하고 무사히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의를 갖는다. 첫돌의 또 다른 표현은 초도(初度)가 있는데, 『실록』태종 12년(1421) 11월 4일 기록에는 임금의 어린 아들

종(種)의 ‘초도(初度)’라는 언급이 있어서 조선 초기에 왕자의 첫돌을 축하하는 의례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최배영외, 2010). 또한 『국조보감』 제80권 순조 28년(1828년)기록에도 ‘원손초도일(元孫初度日)’로 표기되었고, 이수광의 『지봉유설』 인사부 생산편에는 중국의 『안씨가훈』을 인용하여 한국의 돌잔치 풍습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이길표, 2000). 돌에는 아기에게 돌복을 입히고 돌상을 차려 축하하고 돌잡이를 한다.

수연례에는 어른의 생신에 자손들이 수연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장수를 기원한다. 고례에는 수연이라는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했고, 자손들이 폐백 예물을 드리고 헌수배례를 올린다(송재용, 2010).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수연례를 하기보다는 어른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자손들이 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2) 성년례

전통 성년례는 고려 광종 16년(956)에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례의식(冠筓禮儀式)이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예기(禮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인 신라 신문왕 6년(686년)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김순진, 2003). 그 후 성년례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사대부를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다(주영애, 2010). 전통사회에서는 15~20세, 여자 15세에 이르면 음력 정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남자는 관례를, 여자는 계례를 하는 성인지례(成人之禮)로서 성인이 됨을 알리는 오늘날의 성년식과 같은 것이다. 성인사회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 의식의 참뜻은 겉모양을 바꾸는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 있다(송재용, 2010).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현대에는 상투를 올리거나 비녀를 꽂는 것은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

아 관·계례라 하지 않고 성년례라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매월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대학이나 단체, 직장에서 의식을 치르고 선후배들이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로 축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많은 연구(가정생활개선진흥회, 2003;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 2005; 김은희, 2009; 신상구, 2010; 주영애b, 2010)들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에 적합한 성년례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혼례

전통사회에서 혼례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그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전통혼례는 주자가례의 영향을 일부 받기는 하였으나, 주자가례가 비교적 조선화(朝鮮化)한 행례(최배영, 1999)로 변모되어 사회 상황에 맞는 의례로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의 혼례는 서양 문물이 도입된 후 신식 혼인 예식이 들어 오면서부터 서구식 교육의 영향을 받은 계층을 중심으로 전통혼례 대신 신식 혼례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예식관련업종인 웨딩드레스 샵을 비롯하여 웨딩스튜디오, 웨딩메이크업 주얼리샵 등이 성장(김인옥, 2008)하고 있다. 혼례절차도 전통 혼례의 많은 부분을 결합시켜하고 있지만 간소해지고 현대화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함을 보내거나, 폐백을 올리는(주영애a, 2010)등 그 전통적인 기본 틀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4) 상례

상례는 삶의 마지막 통과의례로 극진한 슬픔 속에서 경건하게 치뤄야한다(임혜경 외 2인, 2003). 전통상례에서는 부모님의 상을 당한 경우 임중부터 매장 의식을 거쳐 상주들이 상기(喪期)를 마치고 탈상에 이르는 3년 동안의 의례 절차를 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부모님

의 상을 당한 경우 약 100일간의 상기를 지내고 있다(김신연, 2001). 무엇보다 장례의 의식 절차와 방법, 장소 등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의 절차를 대행하고 임종과 발인의식은 종교의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의 순간을 중시하는 것, 부고를 지내는 것, 문상객의 범위가 넓은 것, 상주 및 친지들이 밤을 지새우는 것, 조위금을 마련하는 것, 장례의 절차를 중시하는 것, 삼우제를 지내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상장례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오재환, 2001).

5) 제례

제례는 조상의 돌아가신 날을 기리며, 제사를 받드는 의식과 예절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제례는 조상의 사후에 효를 계속하기 위함으로(이정우·김명나, 1990; 김인옥, 1997)강조되어 왔고, 무엇보다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다하여 지내는 것이 근본이다. 예로부터 제례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을 우선시하게 되면 본질적인 정신을 잃게 되므로 정성을 다하는 기본 마음가짐을 강조해 왔고, 이는 제수를 마련하는 데에도 잘 나타난다. 제수는 음식을 매개로 하여 정성과 염원을 조상님께 전달하여 위로하고 가호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례문화의 변화로 각 가정의 종교에 따라 유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 등 각 종교별로 고인을 기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제례라 하는 용어를 대신하여 이를 통칭할 수 있는 추모의례(구숙희·최배영, 2011)로 연구되기도 한다. 제례의 형식과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고인의 삶을 회고하고 자손으로서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의례로서의 의미는 지속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가정의례의 세부 영역별로 연구된 바를 보면 생일의례는 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이은표(1998)연구를 비롯하여, 안혜숙·김인옥·주영애(200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수연례에 대한 의식조사, 가정행사 수행 실태를 조사한 장상옥(2004), 연구를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생일의례의 수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가정행사 수행 실태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탄생행사(장상옥, 2004)라고 하였으며, 이는 손님 수용공간과 대량 음식준비를 감안하여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성년례에 대한 연구는 성년례활성화방안이나 모델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성년례에 대한 의식조사와 관련된 연구로는 오환일·김정신·이행숙·조희진(2002)연구, 조희선·이혜자·이윤정(2002), 이동필(2004), 주영애b(2010)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년례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의의를 갖고 있으며, 형식과 방법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성년례의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는 구체적인 성년례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숙명여대가 공동주최하는 숙인당 후원의 성년례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지나친 상업성에 치우친 왜곡된 성년례를 지양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년례특강, 성년례정착을 위한 연구, 건전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예비부부교육으로서 성년례확산을 위한 건강가정센터 가정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행사 증가를

기대하였다. 주영애(2010)연구에서는 가족중심의 개별성년례의 필요성과 성년례 실천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안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행사 수행 프로그램 실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어머니들의 성년례인식과 관련 변수로는 연령과 종교를 지적하였다.

혼례에 대해 연구한 이지영(1998)연구에서는 전통사회의 혼인준비내용과 혼인의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높은 수용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혼인관행은 예로부터 행해왔던 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실리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행하자고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주영애(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정신은 이어가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경험이 매우 낮고, 성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제안하였다.

상제례에 대한 연구로는 가정의례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바로 볼 수 있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례의 인식을 연구한 홍현주(1986), 송유미(1990)의 연구에서는 조상제사에 있어서 기능>구조>형식의 순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가족의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심층의식 속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였다. 주부의 제사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사회적 지위, 거주지, 종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농촌에 거주하며, 불교 신자일 때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옥(2003)은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제례에 대한 인식보다 수행의 정도는 낮으며 특히 일부 제사형식과 절차에 있어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로서 대학생들이 집안 내 제사 참여의 기회가 많을수록 제례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례 수행의 동

기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례의식이나 수행에서는 본인이나 가정의 종교가 큰 변수로 작용하며 대체로 기독교인의 경우 제례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종필(2007), 이승연(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관혼상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사회과 교과서에서 관혼상제에 대한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관혼상제의 기본개념 및 의의, 도덕적 효과, 궁극적 목적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식은 남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한편 미혼남녀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를 한 정은선(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가정의례 인식은 연령, 본인의 종교, 아버지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 본인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학력, 가정의례문화교육의 필요성 여부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옥선화·진미정(2011)연구에서는 가족의례에 대한 세대별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제사와 같은 경우는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지만,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의 배경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세대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삼칠일을 지키거나 명절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 전통적인 문화유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가족의례가 세대에 관계 없이 전통이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도 주장하였다.

가정의례의 변화양상은 이렇듯이 개인적인 특성 변수 뿐만 아니라, 세대나 전통적인 가치 등에 따라 달라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에 밀접하게 연관됨으로써 각 의례문화의 내용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과 종교가 의례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의례교육과 관련된 관혼상제 교육 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등도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가정의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하여 생일의례,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생일의례에서는 백일과 돌수연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전통사회의 소비가가치에 대한 조사연구(심영, 2006)에서 적용된 공감과 적용의 용어를 참고하였으며, 공감과 적용은 조사대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의사의 표시이며, 어느 정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가정의례에 대한 관심도나 지식측정보다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따라서 여대생의 가정의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을 중심으로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의례에 대한 교육실태와 의례장소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의례의 하위영역별 공감과 적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의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가정의례 공감

가정의례 공감은 전통사회로부터 현재까지

가정의례 각 내용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의사의 표현으로서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수용하는 의식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2) 가정의례 적용

가정의례 적용은 앞으로 가정의례의 주관자로서 가정의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자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임의로 표집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009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비조사 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009년 11월 23일~2010년 12월 5일까지 3학기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전공 및 교양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일시점에 전체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일부를 제외하고 463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조사도구 및 자료 처리

본 조사를 위한 설문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설문구성은 이길표(1989), 송유미(1990), 이지영(1998), 정은선(2004)의 선행연구 설문지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에 관한 문항은 각각 5점 Likert척도를 적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을,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의 전반적인 경향은 산술평균을 구한 뒤 t-test검증을 하였다. 배경변인별 가정의례의 공감 및 적용의 차이는 일원변

〈표 1〉 설문구성 및 신뢰도

설문구성	문항 갯수	문항의 세부 구성	신뢰도	
			공감	적용
조사대상의 일반적사항	13	연령, 형제순위, 전공, 본인종교, 아버지종교, 어머니종교, 조부모와 동거경험,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성장지, 주거형태, 가정교육수준, 가정의 한달 총수입		
가정의례교육의 실태	5	가정의례교육 경험여부, 교육경험장소, 가정의례교육 필요성여부, 가정의례교육 희망장소, 희망하는 가정의례교육		
가정의례의 장소	7	생일(백일 돌), 생신, 평소생일,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가정의례의 공감 가정의례의 적용	22 22	생일의례(백일, 돌, 수연)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alpha=.672$	$\alpha=.673$
			$\alpha=.644$	$\alpha=.755$
			$\alpha=.655$	$\alpha=.660$
			$\alpha=.519$	$\alpha=.669$
			$\alpha=.765$	$\alpha=.762$

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추후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은 만 20~21세가 35.9%로 가장 많았고, 형제순위는 장녀 51.8%, 막내 21.0%였다. 전공은 사회계열이 36.3%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 8.2%로 가장 적었다. 본인의 종교는 무교 및 기타종교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30.7%, 천주교 17.1%, 불교 8.6% 순이었다. 아버지 종교는 무교 및 기타종교 48.4%, 기독교 21.8%였으며, 어머니 종교도 무교 및 기타종교 33.3%, 기독교 31.1%였다. 그리고 한달 총수입은 400만원이상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와 동거경험유무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버지 직업으로는 기술·전문직 32.6%, 사무·판매직 24.4%, 자영업 23.1%, 기타 12.3% 순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주부 57.0%, 기술·전문직 16.4%였다. 성장지는

주로 대도시였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0.5%로 가장 많았다. 가정교육수준은 보통 42.5%, 자유롭고 민주적인 편 31.7%, 엄하고 보수적인 편 25.7% 순이었다.

2. 가정의례 교육 실태와 의례장소

조사대상이 경험한 가정의례 교육과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표 3>과 같다. 가정의례 교육 경험은 67.2%가 있었으며, 가정의례교육 경험장소는 학교(초·중·고)가 37.6%로 가장 높았고, 가정(부모님, 조부모님, 친지 등) 31.5%, 대학 강의 29.6%, 매스컴 1.3%로 나타났다. 가정의례교육은 86.4%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희망하는 가정의례 교육의 장소는 학교 49.7%, 가정 39.1%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가정의례교육으로는 상례 30.0%, 제례 26.3%, 혼인례 25.1%, 성년례 11.4%, 생일의례 7.1%순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가정의례교육은 학교(초·중·고 및 대학) 및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가정의례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로 학교(초·중·고 및 대학)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63)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만 18-19세	152(32.8)	조부모와 동거경험	있다	232(50.1)
	만 20-21세	166(35.9)		없다	231(49.9)
	만22세이상	145(31.3)			
형제순위	장녀	240(51.8)	아버지직업	기술·전문직	151(32.6)
	차녀이하	93(20.1)		사무·판매직	113(24.4)
	막내	97(21.0)		자영업	107(23.1)
	외동	33(7.1)		기타	57(12.3)
전공	인문계열	148(32.0)	어머니직업	기술·전문직	76(16.4)
	사회계열	168(36.3)		사무·판매직	61(13.2)
	자연계열	109(23.5)		자영업	62(13.4)
	예체능계열	38(8.2)		주부	264(57.0)
본인종교	천주교	79(17.1)	성장지	대도시	284(61.3)
	불교	40(8.6)		중소도시	142(30.7)
	기독교	142(30.7)		농산어촌	37(8.0)
	무교/기타종교	202(43.6)			
아버지종교	천주교	67(14.5)	주거형태	단독주택	70(15.1)
	불교	71(15.3)		아파트	280(60.5)
	기독교	101(21.8)		연립 및 기타주택	113(24.4)
	무교/기타종교	224(48.4)			
어머니종교	천주교	82(17.7)	가정교육수준	엄하고 보수적인편이다	119(25.7)
	불교	83(17.9)		보통이다	197(42.5)
	기독교	144(31.1)		자유롭고 민주적이다	147(31.7)
	무교/기타종교	154(33.3)			
한달 총수입	200만원 미만	37(8.0)			
	200-300만원 미만	85(18.4)			
	300-400만원 미만	143(30.9)			
	400만원 이상	198(42.8)			

가정에서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희망하는 가정의례교육은 '상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혼례를 가장 많이 희망한다고 했던 정은선(2004)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 보다는 상례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바가 높았다.

가정의례 수행 희망 장소는 <표 4>와 같다.

생일의례는 백일 또는 돌 등의 의례적 생일, 회갑, 칠순, 팔순 등의 생신, 평소생일로 나누었다. 백일 또는 돌을 치르는 장소로는 가정 밖 60.0%, 가정내 40.0%로 나타났다. 회갑, 칠순, 팔순 등의 생신을 치르는 장소로는 가정밖 74.5%, 가정내 25.5%로 나타났으며, 평소생일은 가정내 77.1%, 가정밖 22.9%순으로 희망하였다.

〈표 3〉 가정의례 교육

(N=463)

변인	구분	빈도(%)
가정의례 교육경험여부	있다	311(67.2)
	없다	152(32.8)
가정의례 교육경험장소	가정(부모님, 조부모님, 친지등)	98(31.5)
	학교(초중고)	117(37.6)
	대학강의	92(29.6)
	매스컴(tv, 신문, 인터넷) 및 기타	4(1.3)
가정의례 교육필요성여부	예	400(86.4)
	아니요	63(13.6)
희망하는 가정의례 교육의 장소	가정에서	181(39.1)
	문화센터	31(6.7)
	종교기관	16(3.5)
	학교	230(49.7)
	기타	5(1.1)
희망하는 가정의례 교육	생일의례	33(7.1)
	성년례	53(11.4)
	혼인례	116(25.1)
	상례	139(30.0)
	제례	122(26.3)

〈표 4〉 가정의례 수행 희망 장소

가정의례		가정내(%)	가정밖(%)
생일의례	생일(백일 또는 돌)	185(40.0)	278(60.0)
	생신(회갑, 칠순, 팔순 등)	118(25.5)	345(74.5)
	평소생일	357(77.1)	106(22.9)
성년례		251(54.2)	212(45.8)
혼례		42(9.1)	421(90.9)
상례		112(24.2)	351(75.8)
제례		354(76.5)	109(23.5)

이상을 종합하면 가정 밖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의례는 혼례, 상례, 생일의례 중 의례적 생일(백일, 돌, 회갑, 칠순, 팔순 등)이며, 가정 내에서 행하기를 희망하는 의례는 평소생일, 성년례, 제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가정의례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사회와 비교해볼 때 혼례와 상례 생일의례 중 일부는 사회화된 현상을 나타낸 바를 할 수 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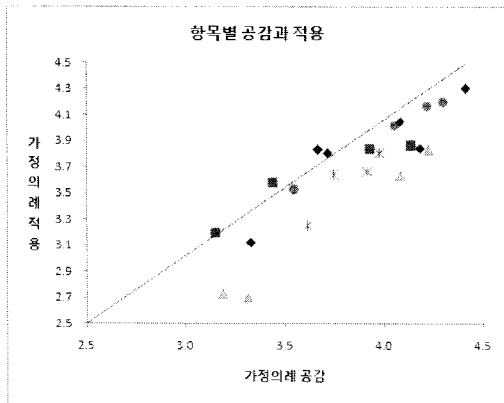
나 아직까지 제례와 평소생일은 가정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가정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3.829)과 적용(3.663)은 모두 평균점수를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공감수준과 적용수준을 나

타내었으나, 공감과 적용 수준은 차이($p<.001$)를 보여 공감이 상대적으로 적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표 5> <그림 1>참조).

<그림 1>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생일: * 성년례: △ 혼례: □ 상례: ○ 제례: ◇)

가정의례 공감수준은 상례>제례>생일의례>성년례>혼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적용은 상례>제례>혼례>생일의례>성년례 순이었다. 또한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이 차이는 성년례>생일의례>제례>상례>혼례 순이었다.

성년례의 공감과 적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 성년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

음을 보였다. 생일의례, 상례, 제례도 공감과 적용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는 수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혼례는 공감 정도와 실제 적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혼례에 대한 공감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가정의례의 하위영역별 공감과 적용의 차이

1) 생일의례

생일의례의 각 요인별 공감과 적용정도, 그리고 공감과 적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백일 돌행사는 가족, 친지가 모두 모여 한다’는 공감(3.98)과 적용(3.81)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갑 때는 부모님께 새 옷을 장만해 드려야 한다.’는 공감(3.92)과 적용(3.66)이 $p<.001$ 에서 ‘어른의 10년 주기 (칠순, 팔순, 구순 등) 생신에는 수연행사를 해야 한다’는 공감과(3.75) 적용(3.64)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백일이나 돌떡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돌려야 한다.’는 공감(3.61), 적용(3.25)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영역	공감		적용		공감-적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통계량
생일	3.814	.601	3.591	.643	.22300	8.221***
성년례	3.702	.601	3.224	.759	.47840	14.337***
혼례	3.663	.605	3.619	.593	.04428	1.821
상례	4.030	.487	3.977	.536	.05292	2.667**
제례	3.899	.641	3.824	.704	.07559	3.070**
전체	3.829	.422	3.663	.465	.16582	10.370***

*** $p<.001$ ** $p<.01$

〈표 6〉 생일의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구분	내용	공감	적용	공감-적용	
		M(SD)	M(SD)	평균	t값
생일의례	백일, 돌 행사는 가족, 친지가 모두 모여 한다	3.98(.89)	3.81(.88)	.171	4.347***
	백일이나 돌떡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돌려야 한다	3.61(.87)	3.25(.97)	.363	8.465***
	회갑때는 부모님께 새 옷을 장만해 드려야 한다	3.92(.81)	3.66(.89)	.253	6.217***
	어른의 10년 주기(칠순, 팔순, 구순 등) 생신에는 수연행사를 해야 한다	3.75(.81)	3.64(.88)	.106	2.617**

p<.01 *p<.001

생일의례에서는 어른의 10주년 주기(칠순, 팔순, 구순 등)의 수연행사보다 백일, 돌의 행사에 현실적으로 더 적용을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의 행사 수행 실태에 있어서 탄생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현대 가정행사, 전통행사 순으로 행하는 장상옥(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행해져온 생일의례에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행사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원거리에 살거나,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적용하는 현실을 볼 때 과거와 같은 생일의례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는 결과로 보인다.

2) 성년례

성년례의 각 요인별 공감 및 적용정도, 그리고 공감과 적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년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은 ‘성년이 되면 성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의 경우 공감(4.22), 적용(3.83)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성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주영애b(2010)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주위 사람들도 성년자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가 공감(4.08)과 적용(3.63)이 p<.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년례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경

〈표 7〉 성년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구분	내용	공감	적용	공감-적용	
		M(SD)	M(SD)	평균	t값
성년례	성년례는 생애에 있어 중요한 통과례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	3.19(.97)	2.73(1.06)	.456	9.818***
	성년의 날은 어른으로부터 술 마시는 법도를 배워야 한다	3.31(1.05)	2.70(1.14)	.613	11.340***
	성년이 되면 성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4.22(.67)	3.83(.85)	.393	9.853***
	성년이 되면 주위 사람들도 성년자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	4.08(.71)	3.63(.93)	.451	10.903***

***p<.001

우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런 현상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년의 날은 어른으로부터 술 마시는 법도를 배워야 한다.’는 공감(3.31)과 적용(2.70)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로부터 성년례에서는 “초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어른이 성년자에게 술을 내려주는 절차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와 같은 성년례가 거의 치러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주영애b(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족의례로서의 성년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성년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성년례는 ‘생애에 있어 중요한 통과의례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3.19)과 적용(2.73)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감과 적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다. 이는 다른 의례에 비교할 때, 성년례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기회가 부족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3) 혼례

혼례의 각 요인별 공감 및 적용정도, 그리고 공감과 적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혼인날을 정했어도 양가에서 초상이 나면 탈상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공감(4.14)

과 적용(3.76)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로부터 혼인날을 정했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치르고 혼례를 올렸으나 이러한 정신은 현대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더라도 실제 적용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예단과 혼수는 형편껏 정성을 다해 마련한다.’는 공감(3.93), 적용(3.84)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편 ‘혼례에서 함보내기와 받기 행사는 하도록 한다.’는 공감(3.15), 적용(3.19)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실제 공감과 적용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은 함보내기와 받기 행사는 생략하고 싶어도 사회통념상 따라서 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혼인의 정신보다는 타인의 시선이나, 위신, 체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시댁에 인사드리는 폐백은 해야 한다’는 적용(3.58)이 공감(3.44)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폐백은 지킬 것(주영애a, 2010)이라는 최근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폐백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행 음식점에서 폐백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형식에 따라 하는 분위기가 자리매김 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현재와 같이 예식 후 바로 예식장내의 폐백실에서 시부모님께 폐백을

<표 8> 혼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구분	내용	공감	적용	공감-적용	
		M(SD)	M(SD)	평균	t값
혼례	혼인날을 정했어도 양가에서 초상이 나면 탈상 후로 미루어야 한다	4.14(.76)	3.86(.79)	.272	8.030***
	예단과 혼수는 형편껏 정성을 다해 마련한다	3.93(.83)	3.84(.79)	.091	2.309*
	혼례에서 함보내기와 받기 행사는 하도록 한다	3.15(.94)	3.19(.92)	-.045	-1.090
	시댁에 인사드리는 폐백은 해야 한다	3.44(.91)	3.58(.86)	-.140	-3.432**

* $p < .05$ ** $p < .01$ *** $p < .001$

드리는 형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고, 서양식 결혼식이 처음 보편화된 때에는 예식은 예식대로 하되 폐백만큼은 시댁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정의례 준칙의 영향으로 피로연이 금지되는 과정에서 폐백이 예식장에서 하게 되는(김인규, 2006) 형식이 일반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혼례는 다른 의례에 비해 가장 산업화된 의례로 볼 수 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혼수시장과 전문적 혼인예식장이 급증하게 되어 오늘날의 혼인예식문화는 이들 예식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므로 혼인의 과정과 절차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고, 지켜갈 수 있는 교육적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4) 상례

상례의 각 요인별 공감 및 적용정도, 그리고 공감과 적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상가(喪家)에 가면 예법에 맞는 조문 예절로 인사를 행해야 한다.’가 공감(4.30), 적용(4.20)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감과 적용의 의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조문 시 예법에 맞게 표현해야하는 교육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바라 여겨진다.

이는 정은선(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라 하겠다.

‘상주는 돌아가신 분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적합한 상복을 입는다’가 공감(4.22)과 적용(4.17)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슬픈 일(장례)은 기쁜 일(혼례)보다 더 함께 해야 한다’가 공감(4.06)과 적용(4.02)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경사보다 상사에 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조문 시 예절에 관한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상가의 조문은 입관 후에 한다.’는 공감(3.54)과 적용(3.53)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 상례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문하는 시기는 전통 상례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제례

제례의 각 요인별 공감 및 적용정도, 그리고 공감과 적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제례에 대한 인식은 ‘제사(추도식)를 지낼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가 공감(4.41)과 적용(4.30)이 높게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상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구분	내용	공감	적용	공감-적용	
		M(SD)	M(SD)	평균	t값
상례	슬픈일(장례)은 기쁜일(혼례)보다 더 함께 해야 한다	4.06(.83)	4.02(.77)	.041	1.210
	상주는 돌아가신 분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적합한 상복을 입는다	4.22(.66)	4.17(.69)	.052	1.606
	상가의 조문은 입관 후에 한다	3.54(.79)	3.53(.81)	.017	.473
	상가(喪家)에 가면 예법에 맞는 조문예절로 인사를 행해야 한다	4.30(.76)	4.20(.73)	.102	2.737**

**p<.01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주도식이나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공감 4.19, 적용 3.84로 나타났다으며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가 딸만 있는 가정이 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승연(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향후 딸이 제사지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5%가 찬성하였고, 그 비율 또한 남녀 찬성 비율이 동일하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사(추도식)를 지내야 한다’는 공감(4.08)과 적용(4.05)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사를 통해 효의 실천은 지켜질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제사음식은 가정에서 정성껏 직접 만들어야 한다’ 공감(3.71)과 적용(3.80)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제수마련의 주된 책임을 져왔던 주부들이 취업이 증가하면서 제수마련의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은 중간 점수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도 제사음식을 가정에서 직접 마련하는 것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설이나 추석에는 차례를 지낸다’는 공감

(3.67)과 적용(3.83)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고유의 명절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며, 명절을 휴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를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앞으로 의례의 주관자로 공감하는 수준은 낮으나, 사회적 기대나 의무로 적용하고자함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사(추도식)에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생각나도록 한다’는 공감(3.33)과 적용(3.12)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총 18개의 배경변인(연령, 형제순위, 전공, 본인종교, 아버지종교, 어머니종교, 조부모와 동거경험,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성장지, 주거형태, 가정교육수준, 가정의 한달 총수입, 가정의례교육 경험여부, 교육경험장소, 가정의례교육 필요성여

<표 10> 제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구분	내용	공감	적용	공감-적용	
		M(SD)	M(SD)	평균	t값
제례	제사(추도식)에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생각나도록 한다	3.33(.99)	3.12(1.05)	.210	4.585***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사(추도식)를 지내야 한다	4.08(.89)	4.05(.97)	.035	.939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주도식이나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	4.19(.82)	3.84(1.01)	.343	7.859***
	제사(추도식)를 지낼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4.41(.67)	4.30(.76)	.114	3.397**
	제사음식은 가정에서 정성껏 직접 만들어야 한다	3.71(1.06)	3.80(1.12)	-.084	-1.709
	설이나 추석에는 차례를 지낸다	3.67(1.17)	3.83(1.27)	-.164	-3.438**

* $p<.05$ ** $p<.01$

〈표 11〉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

배경변인	하위영역	생일공감 적용차이	성년례공감 적용차이	혼례공감 적용차이	상례공감 적용차이	제례공감 적용차이	가정의례 공감적용차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형제 순위	장남, 장녀	.199 (.55)	.465 (.72)	.004 (.52)	.032 (.39)	.051a (.50)	.141 (.32)
	차남, 차녀이하	.253 (.68)	.401 (.67)	.108 (.47)	.102 (.43)	.022a (.50)	.163 (.34)
	막내	.273 (.60)	.528 (.69)	.049 (.51)	.018 (.44)	.100a (.57)	.185 (.34)
	외동	.167 (.47)	.652 (.89)	.144 (.69)	.167 (.59)	.333b (.61)	.296 (.48)
	F	.556	1.192	1.328	1.602	3.205*	2.104
본인 종교	천주교	.152 (.56)	.358 (.61)	.057ab (.50)	.028 (.43)	.156 (.58)	.151 (.35)
	불교	.225 (.55)	.519 (.67)	.000ab (.49)	.131 (.40)	.175 (.38)	.207 (.32)
	기독교	.246 (.63)	.532 (.80)	.157b (.48)	.079 (.46)	.108 (.52)	.214 (.37)
	무교 및 기타종교	.234 (.55)	.480 (.70)	-.031a (.54)	.028 (.40)	.002 (.52)	.130 (.31)
	F	.489	1.049	3.754*	.935	2.593	1.909
아버지 종교	천주교	.093 (.55)	.340 (.63)	.030ab (.53)	.022 (.46)	.104 (.55)	.117 (.37)
	불교	.158 (.52)	.609 (.65)	-.032a (.47)	.067 (.38)	.026 (.45)	.153 (.28)
	기독교	.228 (.58)	.468 (.81)	.171b (.41)	.136 (.48)	.129 (.62)	.217 (.37)
	무교 및 기타종교	.280 (.61)	.483 (.71)	.016ab (.57)	.020 (.40)	.059 (.51)	.161 (.34)
	F	2.125	1.638	2.739*	1.871	0.687	1.259
어머니 종교	천주교	.128 (.54)	.366 (.62)	.049ab (.50)	.018 (.39)	.134 (.57)	.139 (.35)
	불교	.286 (.52)	.503 (.60)	.051ab (.55)	.120 (.44)	.092 (.58)	.200 (.33)
	기독교	.234 (.63)	.526 (.81)	.155b (.48)	.089 (.46)	.102 (.54)	.210 (.37)
	무교 및 기타종교	.229 (.59)	.481 (.73)	-.065a (.54)	.002 (.41)	.011 (.47)	.120 (.32)
	F	1.071	0.915	4.473*	1.960	1.249	2.152

가정의례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을 토대로 한 가정의례교육 방향

배경변인	하위영역	생일공감 적용차이	성년례공감 적용차이	혼례공감 적용차이	상례공감 적용차이	제례공감 적용차이	가정의례 공감적용차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장지	대도시	.237 (.58)	.529ab (.70)	.023 (.51)	.070 (.41)	.110 (.54)	.186 (.34)
	중소도시	.187 (.58)	.345a (.72)	.085 (.47)	.000 (.41)	-.004 (.44)	.111 (.30)
	농산어촌	.257 (.57)	.601b (.72)	.054 (.72)	.128 (.51)	.117 (.67)	.221 (.44)
F		.416	3.741*	.663	1.891	2.300	2.784
한달 총수입	200만원 미만	.399 (.49)	.439 (.58)	-.014 (.46)	.230b (.49)	.108 (.49)	.221 (.34)
	200-300만 원 미만	.285 (.54)	.526 (.74)	.018 (.52)	.053a (.47)	.153 (.52)	.202 (.37)
	300-400만 원 미만	.236 (.57)	.460 (.72)	.082 (.60)	.066a (.41)	.016 (.57)	.158 (.37)
	400만원 이상	.154 (.61)	.479 (.72)	.039 (.46)	.010a (.39)	.079 (.50)	.146 (.30)
	F		2.897	.201	1.135	2.861*	1.252
가정의례 교육경험 여부	있다	.174 (.56)	.396 (.63)	.027 (.48)	.039 (.40)	.055 (.53)	.131 (.32)
	없다	.324 (.61)	.646 (.84)	.079 (.58)	.081 (.46)	.117 (.52)	.237 (.38)
t		-2.620**	-3.241**	-.997	-.975	-1.185	-2.979**
교육경험 장소	가정	.140 (.61)	.339 (.65)	.061 (.48)	-.020a (.41)	-.060a (.48)	.078a (.34)
	학교	.160 (.54)	.353 (.63)	-.049 (.45)	.021ab (.41)	.077ab (.54)	.109a (.27)
	대학강의, 매스컴 등	.217 (.51)	.497 (.59)	.073 (.53)	.136b (.39)	.152b (.55)	.209b (.32)
F		.584	2.172	2.380	3.200*	3.866*	4.694**

* p<.05 **p<.01 ***p<.001

부, 가정의례교육 희망장소, 희망하는 가정의례교육)중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형제순위, 본인종교, 아버지종교, 어머니종교, 성장지, 가정의 한달 총수입, 가정의례교육경험여부, 교육

경험장소 등 8개 변인만을 중심으로 보았다.

가정의례 및 생일의례는 가정의례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p<.05)에서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년례는 성장지($p<.05$)와 가정의례 경험여부($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례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바라 하겠다.

혼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본인종교($p<.05$), 아버지 종교($p<.05$), 어머니 종교($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두 기독교 집안에서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 집안은 폐백을 드릴 때 술을 올리는 경우를 꺼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반대로 아버지는 불교 집단이 본인과 어머니는 무교 및 기타종교 집단이 가장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상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한달 총수입($p<.05$), 교육경험 장소($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높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상례의례에 공감하는 수준과 실제 적용하는 수준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 가정은 마음은 있으나 형편상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경험 장소로는 대학강의보다는 가정에서 차이가 적게 나타나 직접적 참여를 통한 가정교육이 공감 및 적용에 대한 차이를 좁히는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대학강의 등 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공감하는 수준만큼 적용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형제순위($p<.05$), 교육경험 장소($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형제가 있는 집단보다 외동인 집단에서 공감과 적용의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경험 장소로는 대학강의 및 매스컴보다는 가정에서 차이가 적게 나타나 상례와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으로부터 실제 경험한 수준과 유사하게 공감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 배경변인 가운데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종교(본인의 종교 및 부모의 종교)가 가정의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길표, 1998),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은선, 2005)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인종교를 제외한 성장지, 가정의례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경험 장소는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세대 간 가정의례의 비교연구(이기숙, 2004)가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종교는 장차 가정 내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므로, 상호 이해를 돕는 실천적인 가정의례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의례교육 경험이 있을 경우, 공감과 적용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때, 부모 교육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의례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한 우리의 전통가정의례에 대한 의미나 가치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정의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 수준을 조사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가정의례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가정의례에 대한 교육의 실태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가정의례 교육경험은 67.2%가 있었으며, 가정의례교육 경험 장소는 학교(초·중·고)가 37.6%로 가장 높았고, 가정(부모님, 조부모님, 친지 등) 31.5%, 대학 강의 29.6%로 나타났다. 가정의례교육은 86.4% 필요하다고 했으며, 희망하는 가정의례 교육의 장소는 학교 49.7%, 가정 39.1%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가정의례교육으로는 상례 30.0%, 제례 26.3%,

혼인례 25.1%, 성년례 11.4%, 생일의례 7.1% 순이었다.

가정의례 수행 희망장소는 백일 또는 돌을 치르는 장소로는 가정 밖 60.0%, 가정내 40.0%로 나타났다. 회갑, 칠순, 팔순 등의 생신을 치르는 장소로는 가정밖 74.5%, 가정내 25.5%로 나타났으며, 평소생일은 가정내 77.1%, 성년례는 가정내 54.2%였으나, 혼례는 가정밖 90.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상례는 가정밖 75.8%, 가정내 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례는 가정내 76.5%, 가정밖 23.5%로 나타나. 상례와 제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가정의례의 하위영역별 가정의례 공감 수준은 상례>제례>생일의례>성년례>혼례 순이고, 실제 적용은 상례>제례>혼례>생일의례>성년례 순이었다. 또한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성년례>생일의례>제례>상례>혼례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례의 하위영역별 공감과 적용의 차이 분석에서 각 의례별 공감 적용 차이가 가장 큰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과를 보면, 생일의례는 ‘백일이나 돌떡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돌려야 한다’가 공감(3.61)과 적용(3.25)이, $p < .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년례는 ‘성년의 날은 어른으로부터 술 마시는 법도를 배워야 한다’가 공감(3.31)과 적용(2.70)이 $p < .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례에서 ‘혼인날을 정했어도 양가에서 초상이 나면 탈상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공감(4.14)과 적용(3.76)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례에서 ‘상가(喪家)에 가면 예법에 맞는 조문예절로 인사를 행해야 한다’는 공감(4.30), 적용(4.20)이, $p < .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례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추도식이나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공감(4.19), 적용(3.84)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분석을 한 결과는 총 18개의 배경변인 중 형제순위, 본인종교, 아버지종교, 어머니종교, 성장지, 가정의 한달 총수입, 가정의례교육 경험여부, 교육경험 장소 등 8개 변인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정의례 및 생일의례는 가정의례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 ($p < .05$)에서 가정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년례는 성장지($p < .05$)와 가정의례 경험여부($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례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혼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본인종교($p < .05$), 아버지 종교($p < .05$), 어머니 종교($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한달 총수입($p < .05$), 교육경험 장소($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제례의 공감과 적용의 차이는 형제순위($p < .05$), 교육경험 장소($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함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의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 결과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며, 현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측면과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이중성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성년례는 공감과 적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의미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의 근본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가정의례를 행하는 때와 장소 상황,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트렌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대 생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지해 왔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례문화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67.2%가 가정의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장소로는 학교와 가정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가정의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원하는 장소는 학교와 가정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례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까지 확대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통만 재현하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좀 더 적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습을 겸한 실천적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 본인종교를 제외한 성장지, 가정의례교육 경험여부 및 교육경험 장소는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관련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의례교육 경험여부는 의례에 대한 공감과 적용에 유의미한 변수가 됨을 볼 때, 의례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의례에 대한 배움이 없고, 확실한 가치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 혼란과 정체성 없는 의례문화가 자리매김 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정의례교육 경험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때, 공감적용의 차이가 적게 나타남을 볼 때 위에서 강조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교육을 통한 가정의례 경험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외의 관련 변수에 따라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 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구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가정의례 수행 시 마찰이 없도록 각 종교별 가정의례의 특성과 절차, 상호이해 부분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제례에 대한 실천적 교육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가정 밖에서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의례는 상례, 혼례가 가장 두드러지므로, 관련 의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의례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례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례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을 세부영역별로 제시하면, 생일의례의 경우 백일이나 돌은 성장하는 아기의 무병장수와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년례는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이나, 조사대상자들은 초례를 통한 술에 대한 예법을 배우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볼 때, 청소년시기에 성년이 되기 이전에 사전교육으로 성년례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혼례에서는 함 보내기와 받기, 폐백 등에 대하여 한국의 혼례문화로 받아들이고 지켜갈 수 있는 교육과, 조문예절이나 제사의 본질적 의미 교육 등도 가정의례교육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세대별 가정의례의 세부내용에 대한 공감과 적용의 비교연구나 종교별 가정의례의 공감과 적용연구, 가정의례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나아가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각 의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의례문화는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아 수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적 속성이 반영되는 가정의 의례생활을 중심으로 공감과 적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본 데에 의의를 두고자한다.

【참 고 문 헌】

- 1) 구숙희·최배영(2011). 서울시 중년기 주부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23-44
- 2)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성년례 참여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76.
- 3) 김득중(2005).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4) 김득중(2007). 지향가정의례. 서울: 중화서원.
- 5)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신연(2001). 전통생활예절. 서울: 민속원.
- 7)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인옥(2007). 가정의례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9) 김인옥·안혜숙(2003).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13-129.
- 10) 김인옥·안혜숙·주영애(2006). 수연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9(2), 65-74.
- 11) 김인옥(2008). 예식업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181-1195.
- 12) 문옥표(1997).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전통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76·77합집, 153-180.
- 13) 문종필(2007). 초등 사회과 관혼상제 관련내용 및 학생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족가족복지학, 6(1), 31-54.
- 15) 박명옥·최배영(2004). 테마가 있는 예절이야기. 서울: 새로운 사람들.
- 16) 송재용(2010). 한국의례의 연구. 서울: 박문사.
- 17) 심 영(2006). 속담에 나타난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소비문화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85-113.
- 18)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신정.
- 19) 오원경(2003). 혼례, 상례제속의 차례속. 중국사연구, 22, 129-159.
- 20) 오재환(2001). 한국의 근대화 의례 연구:박정희시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옥선화·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22) 유덕선(2009). 한국인의 관혼상제. 서울: 홍문관.
- 23) 이기숙(2004). 낙동강 남부지역의 상례문화 실태조사: 부산의 교사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11.
- 24) 이길표(2000). 전통가례.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5) 이동필(2004).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승연(2008). 초·중등학교 전통예절교육에 관한 소고: 제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28, 216-240.
- 27)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28)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식·제사 및 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8, 23-50.
- 29)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이희재(2007). 한국의 전통의례. 서울: 한국학

술정보

- 31) 장상옥(2004).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 및 사회화와 행사의식 변화 : 최근 10년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53-264.
- 32) 정은선(2005).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 의례문화인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주영애(1997). 바람직한 조문예절의 모색.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224-245.
- 34) 주영애(2002). 경로연에 관한 현대적 재조명.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0, 195-211.
- 35) 주영애a(2010).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57-77.
- 36) 주영애b(2010).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0.
- 37) 최배영(1999). 가례서를 통해 본 「혼례」관 연구 : 가례, 가례집람,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최배영·최경희·이경란(2010). 조선시대 첫돌 의례문화. 서울:이담.
- 39)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00).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141-156.
- 40)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황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투 고 일 : 2011년 6월 27일
- 심 사 일 : 2011년 7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4일